

日本 聖마리아病院 研修記

李 英 子

〈성빈센트병원 감독간호사〉

한달 동안의 일본에서의 연수를 위해 6월 6일 일본으로 향했다. 가깝고도 먼 이웃 나라라는 말이 실감나듯이 기내에서 간단한 점심 식사를 마치자 숨돌릴 여유도 없이, 일본 후쿠오카 공항이 시야에 들어왔다.

간단한 입국 절차를 마치고, 마리아병원 관계자의 마중을 받으며 공항을 나와 연수를 받을 구르메시에 있는 성 마리아 병원으로 향했다.

새로운 환경에 접한 호기심으로, 초여름의 더운 날씨도 잊고 차창 밖의 풍경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의 간판들은 정작 일본어 보다는 한자로 된 것이 많아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강은 알아 볼 수가 있었다.

승용차로 한시간 가량을 달려 구르메시에 도착하였다. 숙소인 Maria Hause에 여장을 풀고, 간단한 인사와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일본에서의 첫밤을 보냈다. 둘째날, 간호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개월간의 연수 일정에 들어갔다. 한달간의 연수일정은 우리가 요청한 스케줄 대로 잘 짜여져 있었다.

환자 간호에 관한 것부터 개인의 사생활까지 여러가지 이야기를 언어가 능통하지 못한 가운데 눈빛으로 서로 나누며 어색함없이 연수에 임하였다.

간호부에는 부장 1명에 감독 간호사 5명이 있었다. 감독 간호사중 1명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에서 2개월 간이나 연수를 받은 터에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감독 간호사와 수간호사들이 또 강남성모

병원에서의 연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였고 열심히 가르쳐 보리라 마음다지며, 한국어를 일본어로 표기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점심식사는 가마솥을 준비하여 해먹었다. “가마”라는 말은 일본어로 솥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는 우리나라에서 전래된 말일것 같은 생각이 든다. 마리아 병원에는 각 부서마다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서 편리하였다.

연수생이라는 피동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우리병원에서 근무하듯이 무엇이든지 찾아서 호기심을 가지고 열심히 챙겼다. 한달간의 연수기간이 너무나 빠르게 느껴졌다. 문득 문득 집 생각이 스쳐 지나갔으나 바쁜 연수일정으로 크게 다가오지는 않았다.

연수중 일본환태자의 결혼식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이날을 공휴일로 정해 축제의 도가니에 빠졌다. 결혼식의 준비 및 여러가지 뒷 얘기가 연일 TV 화면을 매우고 있었다. 우리는 모처럼 연수 스케줄이 없는 이날을 택해 함께 연수중인 외국인 Dr. 9명과 구르메시내 관광을 떠났다.

우리 일행은 고량산, 과학관, 성, 신사 등을 돌아 보았다. 일본의 풍물이나 관광지를 관광하면서 새롭고 신기함과 모두들 영어를 구사하였으나, 우리는 회화 중심의 교육이 미흡하여 눈만 멀뚱멀뚱거리거나 손짓 발짓을 동원하여 의사 소통을 하면서 평상시 외국어 능력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민망할 정도로 친절이 몸에 배어 있어 꼭 배워야 할 과제로 생각되었다. 보고 느낀 것도 많으나, 각 파트별로 특이했던 몇 가지만 적어 보려한다.

구급센터

구급센터는 전화가 직접 연결되어 연락이 오면 환자를 모시러 가던가, 몇시 도착이라고 하면 이곳 구급센터에서 필요한 준비사항을 해놓

게 된다. 구급차는 순환기·신생아용으로 구분되어 기구, 물품, Car phone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환자는 대부분 1시간 내에 치료가 해결되기 때문에 응급실에 머무는 시간은 얼마 안되며, 구급센터 자체에서 분석을 하는지 30분 이내, 1시간 이내 등으로 나누어 질병과 비교하여 Computer에 입력된 것을 보여주었다.

한번은 구르메에서 왕복 1시간 거리의 개인병원에서 환자를 모셔오게 되었다. 환자를 후송할 때 개인병원의 간호사가 2차 병원 간호사에게 환자에 대하여 증상, 상태, 질병경과에 대하여 인계를 하고, 그곳 간호부장이 환자 소견서를 2차 기관 간호부에게,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소견서를 2차 기관에 보내지게 되어 환자 후송시에는 2개의 소견서를 지참하게 된다.

2차 기관에 이송되는 환자는 어느분이 환자를 모시고 오던 <119> 환자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돌아간다. 소견서에 의하여 문진이 작성되면 환자에게 반복문진은 없으며, 1차 기관의 응급처치 후에 오므로 2차 기관에서 서두르는 것은 없고, 방사선과 임상병리과(EKG 포함) 검사는 단 시간내에 결과를 볼 수 있으며, 구급센터만 관리하는 “행정부서”가 따로 있었다.

접수부에서는 진찰권을 만들어 구급센터에 보내지며, 모든 검사는 계산을 하지 않고 검사를 하며 우리나라 병원과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환자가 도착하면 의사가 바로 내려오며, 검사결과가 나오면 보호자에게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 환자 보호자는 의자에 앉히고 의사는 서서 설명을 해주게 된다. 병동 어느 곳이든 보호자 설명실이 따로 준비되어 있으며, 모든 시설은 환자를 위주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병원 어느곳을 가든지 공간에는 성모상과 벽에는 성모님 그림이 걸려 있다. 종교단체도 아니면서 자그마한 성당과 병원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가톨릭 분위기로 만들어 놓은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했으며 작지만 성당에는 밤새도록 비치는 서치라이트와 보건센터 대기실에 만들어진 성화 등을 봐도 알 수 있었다.

중환자실

GICU(중환자실)은 완전하게 전인간호를 하는 곳이다. 간호사 1명이 환자 2명을 맡아 Total care를 해주고 있으며, 환자에게는 정말 잘해주고 있었다. 보호자 면회시간은 오후 2시~4시까지이며 4사람씩 15분간으로 되어 있고, 면회를 하려면 보호자는 머리에 cap를 쓰고 가운과 슬리퍼를 착용한 후 면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규율을 어기는 사람은 없었다.

모든 시스템은 편리하게 그 장소에 맞게 만들어져 있었으며, 환자(무의식환자)에게도 항상 대면할 때마다 인사를 하는 것은 우리 간호사가 배워야 할 일이다.

중앙공급실

중앙공급실은 수술실과 통할 수 있으며 수술실 물품은 청결과 불결물품으로 나뉘어져 엘리베이터가 가동되며, 공급실의 소독기는 소독후 소독된 공간으로 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지만 우리가 근무하는 동안은 소독된 공간으로 빠지는 않았다. 각 병동, 외래는 물품함이 있는데 그 함은 복도와 통하게 되어 있고 각종 물품은 재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작은 물품은 세탁하여 말려 사용하고 세탁기와 건조기는 각 병동에도 준비되어 있어 재생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리주사기, 우유 유리병을 사용하고 있으며, 유리주사기는 mix 할 때 사용하면, 간호사실도 분리수거를 하여 주사바늘은 모은 다음에 무게를 달아 적어서 내려 보내고 있었다.

보건센터

보건센터는 계획성 있게 만들어 졌으며, 1일 코스,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로 보건센터 건물은 다른 건물과 분리되어 있고, 숙박시설은 넓은 공간에 문화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임상병리과는 채혈과 동시에 엘리베이터로 임상병리

과로 검체가 내려가며, 가운데 대기실을 중심으로 검사할 수 있는 공간이 둘러 싸여 있다. 모든 검사는 전산에 입력되며 5년간 보관되어 1년에 한번씩 추후 검사를 받으며, 오전에 진료한 환자는 오후에 결과를 볼 수 있고 점심식사는 무료로 제공되며, 오후에는 3 part로 나누어 결과를 보게 된다.

모든 검사의 정상 혹은 비정상은 상담에 의해 OMR 카드에 기록되며, 검진자 질병 여부, 검사결과는 OMR 카드에 의해 진단을 내리게 되며 문제가 있는 환자는 의사가 소개장에 의해 외래예약을 하게 되며, OMR 카드는 다른 병원에서는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건진자가 검사하는 동안 검사에 대한 주의사항, 검사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1박 2일 동안 건진자에게는 당뇨교실, 운동요법 교육이 있어 전신에 관계되는 체력관리를 측정할 수 있고 건진료는 우리나라 cost 보다 조금 많은 것 같다. 최종결과는 3주 후에 우편으로 본인에게 보내진다.

모든 것이 지역주민을 위해 있는 병원이며 년간 교육계획은 일주일에 한번은 학교, 회사, 지역주민에게 건강상담을 하러 가며 지역에는 오후 8시에 간다고 한다. 예약관계만 관리하는 사무실이 따로 있으며 병원과의 연결관계는 당뇨교실, 고혈압교실, 신생아 퇴원교실(오후 2시~4시) 등 병원과 지역사회와 단체 모든 것이 연결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곳은 재택방문을 따로 하고 있는데 1개월 전에 계획을 세우고, 방문 회수는 주 2회, 월 8회, 교통비는 5km에 200엔, 1km당 100엔의 추가로 아주 저렴한 가격이다. 보건상담실이라고 되어 있는 곳 책장에는 지역사회 인구변화, 문제점, 사회보장 관계에 대한 책자가 가득하며 지역사회에 관한 것을 항상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복 도

○ Bar가 설치되어 있으며, Bar는 모두 가족으

로 싸여 있었다.

- 유리창문 맨끝에는 비상시 구조물함이 창문과 바로 통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으며,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다.
- 병동산소, 공기, Suction을 관리하는 중간밸브가 준비되어 비상시 차단기를 내려 안전을 도모할 수가 있었다.

병 실

- 병실은 여러가지로 되어 있다. (8인용, 6인용, 4인용, 2인용, 1인용)
- 다인실도 커텐으로 1인씩 가려지게 되어 있었다.
- 장식장은 침대위에 있으며 그 밑에는 바로 전기스텐드가 달려 있었다.
- 방 하나에 Suction O₂가 준비되어 있다.
- 병실문은 큰 문과 작은 문이 있어 하나는 잠겨있고 필요시에 두 문을 열고 사용할 수 있다.

창 문

- 창문은 밖을 통하는 문은 열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복도에 있는 창문을 Blind로 유리와 유리사이 가운데 설치되어 있으며 잡아 당길 수 있는 것만 나와 있었다.

중환자실

- Station은 열린 상태로 모든 시야가 한 눈에 들어온다.
- 가운데를 Station으로 하여 양쪽으로 나누어지며 중환자방, 격리방, 어린이방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 중중, 경중으로 분류되어 있다.
- 문은 자동문으로 두번에 걸쳐 들어가게 겸문으로 만들었다.
- 들어오는 입구에서 손을 닦으며, 가운데로 갈아 입는다. (보호자)

정신과 병동

- 감시회로 장치가 되어 있으며 가운데가 Station으로 병실문은 두 군데에서 열 수 있으나, 병실은 Station을 둘러싸고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격리실에는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었다.
- 화장실 문은 안에서 잠글 수 있으나, 밖에서도 열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 ENT 환자가 있는 병동은 ENT 처치실이 같이 준비되어 있었다.

산과 분만실

- 산모는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식당이 따로 준비되어 있으며,
- 정상분만 산모, 신생아와 같이 있기 때문에 정상 신생아실은 공간이 작은 편이다.

기 타

- 엘리베이터가 하나는 큰 것(침대사용), 하나는 작은 것이며 필요없는 계층에는 서지 않게 만들었으며, 엘리베이터 하나는 장애자용으로 버튼이 낮아서 손이 닿을 수 있도록 옆 벽면에 부착되어 있었다.

- 병동에는 대중목욕탕이 준비되어 3일은 남자, 3일은 여자로 나누어져 목욕을 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
- 화장실에는 Bar가 설치되어 있고, 인터폰이 준비되어 있으며 썩크대도 Bar가 설치되어 있었다.
- 수도가에 손만 가면 물이 나올 수 있게 만들었다.
- Station 책상위에 Phone, call bell, 전기코드선이 책상위에 설치되어 있다.
- 남녀화장실 가운데 오물을 버리고 변기, 소변기를 양쪽에서 가져갈 수 있게 만들었다.
-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 보호자 침대는 물건을 넣을 수 있으며, 바퀴를 달아 굴러갈 수 있게 만들었다.

여러가지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왔지만, 우리 병원에 모든 것을 적용하기는 어렵더라도 정신적인 것은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친절면에 관하여는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야 하며, 서로간의 인격을 존중하는 예의바른 관계, 이 모든 것을 배우며 이 연수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해 주신 가톨릭병원협회와 관계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